■ 르포 - 해파리떼 공습 서남해 젓새우 어장

그물 가득 해파리 '한숨의 바다'

어민들 하루 120t 수거·분쇄
"어장 다 망쳐 조업 포기할 판"

서남해안 젓새우 어장(漁場)이 해파리떼의 습격으로 사막화되고 있다. 어획량 감소는 물론 어망이 찢겨지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조업 어선에 낚인 해파리는 그물과 크레인으로 분쇄해 바다에 다시 버리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7일 오전 8시30분 목포시 항동 관공선 전용부두에서 135t급 전남도 소속 어업지도선이 젓새우 어장을 향해 떠났다. 조업 중 걸린 해파리를 어업지도선으로 옮겨 분쇄·처리하기 위해서다.

전용 부두에서 2시간쯤 달리자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해상에서 신안 선적 9.7t급 젓새우잡이 어선 '건영호'(선주 김수복·52)가 길이 30m의 닻자망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김씨가 걸그물을 끌어올리자 연분홍빛 우산 모양의 흐물흐물한 연체동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물 속에 무려 100여 마리가 넘는 해파리가 잡힌 것이다. 김씨와 선원 등은 긴 한숨을 내쉬며 해파리와 젓새우를 바다에 다시 풀어놓았다. 해파리와 함께 든 젓새우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는 어업지도선으로 옮겨 실은 뒤 분쇄·처리했다. 이날 120t(추정)이 분쇄·처리되는 바람에 어획량은 단 1㎏도 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일주일 간 잡은 젓새우는 고작 40㎏에 그쳤다.

김씨는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름값(면세유 1드럼 200ℓ 기준, 12만 원선)도 못 건지고 있다. 해파리 무게에 못 이겨 그물이 손상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전날 16개 닻자망 중 2개만 남겨두고 모두 거둬들였다. 조업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신안·영광 등 서남해안에서 젓 새우를 잡는 어가(漁家)는 350가구.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이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해파리가 자주 출현하면서 먹이사슬이 파괴, 젓 새우·꽃게 등 다른 어종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장을 점령한 해파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 큰 것은 지름이 1.5m를 넘고, 최고 250㎏까지 나간다. 해파리가 서남해안에 자주 출현하는 이유는 수온 상승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 수산지원과 박상욱(54) 계장은 "정부에서 해파리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재난피해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연구기관 또한 민간 단체에서도 해파리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 등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올 들어 금어기 직전인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1일간 젓새우 위판량은 5천136드럼(한 드럼당 250㎏)으로 전년대비 9천4드럼보다 42.95%(3천868드럼) 감소했다. 위판가격은 한 드럼당 53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신안=이종행기자 golee@ /신안=조완남기자 wncho@

7일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 관계자들이 젓새우잡이 어선에 걸린 해파리떼를 어민들로부터 수거, 분쇄하기 위해 어망에 쏟고 있다. /신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금호타이어 노조원 '업무 방해' 수사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대의원이 사측의 일방적인 대량해고 통보를 항의하던 중 상사에게 사무실 집기를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조 대의원 A(40)씨가 사측의 대량해고 통보를 항의하던 중 B(37)과장에게 사무실 집기를 던지는 등 폭행했다고 회사측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B과장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관계자는 "대의원으로서 사측 관리자인 해당 과장에게 정리해고 문제를 항의하던 중 빚어진 문제"라며 "자신이 해고명단에 포함돼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사가 합의를 도출해 공장 가동이 이뤄진 만큼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 관계자는 "노사 합의와 폭력행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오련씨 타계 한 달…사망신고도 못하는 사연

대한해협·독도대장정 1억 빚 집·임야 등 경매 넘어갈 처지

두 아들 아버지 뜻 이어 대한해협 재 횡단 논의

지난달 4일 심장마비로 타계한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까지 사망신고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생전에 고인이 진 1억여원의 은행 부채를 곧바로 갚아야 한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제 갓 취업했고, 둘째 아들은 대학 휴학중이어서 당장 빚을 갚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고인의 땀과 희망이 어린 집과 그 일대 임야 등이 경매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다.

고인은 지난 2005년 여생을 고향인 해남에서 지내려 계곡면 법곡리 임야를 구입했다. 이후 근처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3년여에 걸쳐 40여평의 주택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땅은 불모지나 다름없어 매매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가족들은 당장에라도 사망신고를 하고 싶지만 신고 후 감당해야 할 은행 대출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생전에 조오련 선수는 50여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마땅한 후원자도 없이 독도 33바퀴 대장정을 감행하는 등 막대한 연습비용을 혼자서 충당했으며, 이때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

장남 성웅씨는 "인터넷 등에 아버지 사망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저희 형제나 어머니께서 빚이 많아 상속을 안받는 것이라고 오른 글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며 "어머니, 동생과 잘 상의해서 유지를 받들겠으며 아버지의 땀과 희망이 배어있는 곳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못다 이루신 대한해협 재횡단 등에 대해서도 동생 성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49재도 안 지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밝힌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아버지의 유지가 헛되지 않도록 가족들과 상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군수 비방 강진군의원 기소

인터넷 언론사 대표도

검찰이 현직 군수를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강진군의회 의원과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태철)은 7일 현직 군수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명예훼손)로 강진군의회 K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 5월 26일 군의회 발언 등을 통해 "강진군이 용운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국가사적지인 요지(가마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Y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Y씨는 당시 K의원의 주장을 인터뷰 등을 통해 기사화한 뒤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과 Y씨는 "행정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감시·견제한 것"이라며 고의성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목포서 20대 女 변사체

7일 오후 4시께 목포시 대양동 서해안고속도로 종점 인근 도로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화물차 기사 A(47)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도로변을 지나던 중 이상한 물체가 있어 가보니 여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누워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나원참 〈7897〉 김종두

여수산단 30대 인부 숨져

7일 오후 6시40분께 여수시 여수산단내 모 화학제품 출하장에서 김모(39)씨가 지게차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생산된 제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끼여 숨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몹쓸 대학생' 男 초·중생 상습 성추행

쌍나팔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몹쓸' 대학생이 또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

○…광주서부경찰은 7일 광주 모 대학교 학생 조모(19)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금호동 도로에서 귀가하던 광주 모 중학생 A(13)군을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몸을 더듬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초등·중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조씨는 지난 5일 금호동 인근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에 붙잡혔는데, "남자 아이를 보면 참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